

제 목	담당부서	비 고
① 경북도, 청년예술인 일자리 위해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맞손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저변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 협약식 체결 청년 예술가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증진을 위한 공동사업 기획추진	일자리 청년정책관	 사진별첨
② 경북도,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최적지로 구미 건의 전우현 경제부지사,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 만나 구미 유치 당위성 설명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수도권 조성시 지방소멸 가속화 우려 표명	투자유치실	사진별첨
③ 경북도, 문화·관광 활성화로 국내·외 관광객 적극 유치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역사문화자원으로 신(新)경북관광시대 연다 문화향유 여건 및 기회 확대로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의 일상화’ 실현	문화예술과	사진별첨
④ 경북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설명회.. 중소기업 수출활력 높여 중기청, 중진공, KOTRA 등 6개 수출지원 유관기관 지원사업 합동 설명 수출지원정책 수혜 중소기업 확대... 전년도 900개사→올해 1,200개사	국제통상과	사진별첨
⑤ 경북도청 공무원, 2019년을 따뜻한 헌혈로 시작~ 21일(월) 도청 본관 전정, 공직자 생명나눔·사랑의 헌혈운동 전개	보건정책과	 사진별첨
⑥ 제7기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본격 가동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개최... 위촉장 수여 및 안건 심의 위촉위원 보강... 민선7기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높여	장애인복지과	 사진별첨
⑦ 올해 첫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해 3건 심의.. 도시개발사업 활력 칠곡 군관리계획(교통시설:대로)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도시계획과	사진별첨
⑧ 경북도, 동절기 독거노인 안전 직접 챙긴다 보호대책 현장점검, 어르신들의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 독려	노인효복지과	
★ 사진설명 - 이철우 도지사, ‘신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임용장 수여 ※ 1. 20일(일) 보도자료 기 송부	대 변 인	사진별첨
★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제15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참석	대 변 인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21(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일자리청년정책관			
		작성자	정책관	박성근		
			팀장	이정우	주무관	조성용
		연락처	054-880-2755			

경북도, 청년예술인 일자리 위해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맞손

- 지역 문화예술 진흥과 저변 확대를 위해 상호협력 협약식 체결 -
- 청년 예술가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증진을 위한 공동사업 기획·추진 -

경상북도가 청년 예술인재 유입을 통한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창출과 도청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국내 최고(最高) 예술대학인 한국예술종합학교와 손을 잡았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1일(월) 도청 회의실에서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과 지역 문화예술 창달·진흥 및 청년예술가 일자리 증진을 위해 상호협력 강화를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내용은 예술가 육성 및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해 문화예술 관련 정보공유 및 공동수집, 양 기관 간 시설물 활용에 대한 상호 협조, 그리고 청년 예술가 창업·창작 등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증진을 위해 공동사업 기획과 추진을 약속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한국예술종합학교는 도청신도시 홍보관을 ‘청년예술인 창작센터’로 탈바꿈시켜 유능한 청년예술 인재들의 활동 무대로 만드는데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한편, ‘청년예술인 창작센터’는 올해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0억원을 투입, 홍보관을 리모델링해 리빙 랩*, 크리에이티브 랩*, 창작 스튜디오 등 청년예술인을 위한 공간으로 만든다.

또한,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창작·창업기업 입주공간과 판매시설 등 지역 창업 플랫폼으로 조성, 한국예술종합학교에 위탁해 센터를 운영함으로써

청년 문화예술 활동가의 융합·협업 능력을 향상시키고 콘텐츠 기획 역량을 강화하는 등 창의적인 문화예술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다.

* (리빙 랩) ‘생활의 실험실’이라는 뜻, 생활현장에서 주민들이 참여하는 개방형 사회혁신활동 공간

** (크리에이티브 랩) ‘창조적인 연구소’라는 뜻, 청년들이 폭넓게 창조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의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경북 미래의 핵심은 청년인 만큼 청년들의 꿈 실현을 위해 여러 분야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올인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신도시 홍보관이 청년예술인들의 꿈의 놀이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함께 지역 문화예술의 새바람을 일으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붙임 사진자료

- 청년예술인 활동지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

『문화예술 창달 및 진흥』 상호협력 업무 협약식

- ❖ 신도시 문화예술 창달과 진흥 및 청년예술인 활동 지원을 위한 상호 협력
- ❖ 지역 내 청년 문화예술 인력 유입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 거점으로 활성화

■ 행사개요

- 일 시 : 2019. 1. 21.(월) 14:00
- 장 소 : 도청 사립실(3층, 309호)
- 참 석 자 : 도지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

- 배 석

(경북도 4) 경제부지사, 일자리경제산업실장, 청년특보, 일자리청년정책관 등
 (한예종 4) 산학협력단장, 대외협력과장, 산학협력부단장, 산학진흥팀장 등



- ▶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총장(58년생, 전남 순천)
- ▶ 서울대 공과대학 건축학과, 서울대 공학박사
- ▶ 한국예술종합학교 제8대 총장(' 17.8.~현재)
- ▶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건축분과위원장(' 17.~현재)

○ 주요 협약내용

- 예술가 육성 및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상호교류 및 협력
 - 문화예술 관련 정보공유 및 공동 수집, 기관 간 시설물 활용 등
- 청년예술가 창업 등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증진을 위한 공동사업 기획추진
 - 도청신도시 청년예술인 창작센터(창작/창업 등) 조성·운영 등 관련 사항
- 기타 양 기관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제반 사업의 상호 협조 등
 - 청년 문화예술가 양성, 공연전시·창업창작 활동, 지역주민 문화예술 교육, 브랜드런칭 등

■ 시간계획

시 간		주 요 내 용	비 고
14:00~14:10	10'	▶ 환 담(Tea Time)	접견실
14:10~14:13	3'	▶ 개식 및 내빈소개	진행 : 자치행정과 MC
14:13~14:20	7'	▶ 인사말씀(도지사, 총장)	
14:20~14:23	3'	▶ 협약서 내용 설명	일자리청년정책관
14:23~14:25	2'	▶ 협약서 서명 및 교환	
14:25~14:30	5'	▶ 기념촬영 및 폐식	

□ **일반현황**

교 명	한국예술종합학교(국립특수대학교 4년제) / '93년 3월 8일 개교
기 구	6원, 2처 1국 8과 【3개 캠퍼스(대학로, 석관동, 서초동)】
학생수	4,686명 【예술사(학사) 3,227 / 전문사(대학원) 1,459】
교수/교직원	133명(교수 90, 부교수 23, 조교수 20) / 423명(정규 147, 공무원 외 296)
예산안	713억('18년도)
임 무	체계적인 예술실기교육을 통한 전문예술인의 양성

□ **재정현황 - 713억원(인건비 361, 사업비 등 352)**

□ **주요업무**

- **예술영재 발굴.육성 체계 구축 및 지원강화**
 - 예술영재 아카데미, 지역 예술꿈나무 발굴 등
- **예술가 창업.일자리 확대 지원**
 - 청년예술가 창업기업 지원, 청년예술가 사회진출 기회 확대, 새로운 예술 일자리 모델 개발, 문화콘텐츠 기반 일자리 창출
- **융합적 예술인재 양성 및 지역거점형 예술 창작공간 조성**
 - 신진 예술가 현장 진출을 위한 지역거점형 예술 창작공간 조성
 - 연구-교육-창작 프로그램 운영, 문화예술 융합인력 양성
- **국제 예술교류 확대 및 글로벌 역량 강화**
 - 해외 문화예술기관과 협력, 청년예술가 글로벌 역량 강화
- **우수콘텐츠를 활용한 대외 공연.교류.교육사업 활성화 등**
 - 지역 특화 콘텐츠 개발 및 특화프로그램 추진
 - 뮤지컬 창작아카데미 운영, 최고경영자문화예술과정운영(CAP) 등

○ (추진배경)

- 유명무실해진 신도시 홍보관과 인근 부지를 공간적 통합과 기능적인 연계로 지역사회 혁신과 청년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하여 문화예술 청년일자리 창출
- 신도시내 지속적인 청년 문화인력 유입으로 우수인재 확보, 신도시 활성화

○ (추진경과)

- 도청신도시 홍보관 전시내용 부실, 방문객 줄어 유명무실 논란('18. 4월, 영남일보)
- 행정부지사 주재 대책회의, 다목적 문화공간 활용 검토('18. 7월)
 - ※ 각종 디자인상 수상한 홍보관을 청년예술인 창작/창업 공간으로 리모델링
-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리모델링 및 센터운영 방안 협의('18. 9월)

○ (공간조성) 지역주민과 청년예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복합공간 조성

- 총사업비 : 30억원(특교세 15, 지방비 15)
 - ※ 행안부 청년일자리창출 현안사업 선정('18. 12월, 특교세 15억원 확보)
- 홍보관 : 청년 코워킹, 네트워킹, 전시공간, 사무공간 등으로 리모델링
- 주차장 : 법정면적을 제외한 일부를 창작 창업기업 입주, 판매시설 조성
- 게스트 하우스 : 청년예술인, 창업인 등 정주 공간으로 활용
 - ※ 홍보관 200m내 인접한 기존 게스트하우스(11동, 22실) 시설을 입주 청년들에게 대여

○ (운영방안) 한국예술종합학교 위탁 운영

- Living Lab 구축(개방형 사회혁신 활동공간) - 청년사회혁신가 양성(20명)
- 청년 창작스튜디오(청년 예술인 창작활동) - 청년문화활동가 양성(30명)
- 한예종 연계 콘텐츠기획 역량 강화 등 창의적 문화예술 전문가 양성
- 청년창업공간(4차 산업혁명+지역기반 제작생신활동) - 지역 창업 플랫폼 구축(20명)



- 빅데이터·3D·드론 등 4차 산업관련 창업기업, 사회적경제, 소셜벤처 등

○ (향후계획)

- 청년예술단체 또는 청년기업·단체를 선발하여 사무 및 창작 공간 제공
- 지역 문화예술 단체 및 대학 등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1단계)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조성 → (2단계) 신도시 청년 문화예술촌 조성
 → (3단계) 한국예술종합학교 도청신도시 캠퍼스 유치('22년~)



한국예술종합학교 ↔ 경상북도

업 무 협 약 서

한국예술종합학교와 경상북도(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는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을 위해 상호 긴밀하고도 우호적인 협력이 필요함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본 협약은 문화예술의 창달과 진흥을 위해 양 기관의 협력관계를 긴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협력분야) 양 기관은 제1조에 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서 협력한다.

1. 예술가 육성 및 문화예술 저변 확대를 위한 상호교류 및 협력
2. 양 기관의 문화예술 관련 정보공유 및 공동수집
3. 양 기관의 시설물 활용에 대한 상호 협조
4. 청년 예술가 창업·창작 등 문화예술분야 일자리 증진을 위한 공동사업 기획 및 추진
5. 기타 양 기관이 추진하고 있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제반 사업의 상호 협조

제3조 (협력이행) 양 기관은 제2조에서 정한 협력분야에서 실질적인 협력과 성과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며, 별도 협약 체결을 통하여 상호 합의한 분야에서 구체적인 공동사업을 추진한다.

제4조 (효력발생 및 유효기간) 본 협약은 양 기관의 대표가 합의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협약기간은 양 기관의 별도 협의가 없는 한 계속 유효한 것으로 한다.

양 기관은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쌍방이 서명 날인하여 각 1부씩 보관한다.

2019년 1월 21일



한국예술종합학교
총 장
김 봉 렬



경상북도지사
이 철 우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21(월)】	담당부서	투자유치실			
		작성자	실장	황중하		
			팀장	장상열	주무관	임필규
연락처	054-880-4621					

경북도,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최적지로 구미 건의

- 전우현 경제부지사,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 만나 구미 유치 당위성 설명 -
-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수도권 조성시 지방소멸 가속화 우려 표명 -

“지방을 소멸시키는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는 절대 있을 수 없으며, 반도체 특화클러스터는 국가산업의 중심지인 구미가 최적지로 반드시 유치되어야 합니다”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장세용 구미시장과 함께 21일(월) 산업통상자원부 정승일 차관을 만나 정부가 추진 중인 반도체 특화클러스터의 구미 유치를 위해 이같이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전우현 경제부지사는 “구미는 국가 산업의 중심지로 반도체 특화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최적의 입지조건과 산업 인프라를 잘 갖추고 있다” 며

“반도체 제조에 필요한 웨이퍼 생산업체인 SK실트론 본사·제조공장, 삼성·LG와 같은 반도체관련 대기업과 3천여 개의 협력업체가 있고 우수한 인적자원이 풍부하며 구미 국가5단지 조성 중에 있어 새로운 부지 조성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아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 구미 투자환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산업단지를 개발할 때 인·허가와 토지보상, 기초공사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므로 빠르게 변하는 산업환경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면 기업의 투자 기회를 잃을 수 있다” 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유치 어려움이 일자리 부족과 청년층 인재

유출로 이어져 지역민들의 소외감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고 말했다.

전 부지사는 특히 “반도체 특화 클러스터를 수도권에 조성할 경우 수도권은 더욱 비대해지고 지방소멸을 가속화 시킬 수 있다” 고 우려를 표명하고

“대기업의 지방투자를 유도하고 수도권 공장집중에 따라 고사해 가는 지역경제와 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수도권 공장총량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과거 구미는 국가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했으나, 지금은 대기업의 수도권 이전으로 구미경제가 몰락하고 있다. 이대로 수도권규제완화가 지속된다면 추풍령 이남지역은 왕래가 끊긴 산업의 섬으로 남아 점점 더 낙후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고 역설했다.

한편, 반도체 특화클러스터 조성사업은 산업부가 지난해 12월 18일 발표한 2019년도 업무계획에 포함돼 있다. SK하이닉스가 2019년부터 10년간 120조를 투자해 반도체 완성품뿐만 아니라 부품·장비업체까지 공동으로 입주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형 모델을 만드는 것으로 정부 차원에서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북도와 구미시는 SK하이닉스 구미 유치에 위해 지역대학 반도체 학과 개설 등 우수인력확보 방안을 검토하고 고순도 공업용수시설, 전력시설 등 반도체클러스터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구상 중에 있다.

또한, 반도체 특화클러스터가 구미에 유치될 때까지 도민의 역량을 총집결하는 한편, 대구시는 물론 비수도권 지자체와도 긴밀히 공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21(월)】	담당부서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작성자	과장	한재성			
			팀장	여승동	주무관	배영자	
		연락처	054-880-3112				

경북도, 문화관광 활성화로 국내·외 관광객 적극 유치

- 천혜의 자연환경과 우수한 역사문화자원으로 신(新)경북관광 시대 연다 -
- 문화향유 여건 및 기회 확대로 도민이 체감하는 '문화의 일상화' 실현 -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21일(월) 문화·관광·체육분야 소관 부서와 출자·출연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업무보고를 받고 '세계로 열린 문화관광경북'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전 직원이 역량을 모아줄 것을 주문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문화·관광·체육분야 메가프로젝트와 신규 및 역점시책 등에 대해 보고하고 사업 추진방향과 애로사항 등을 점검하는 등 심도 있는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경북도는 민선 7기 출범이후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출범 및 관광진흥기금 조성 제반절차 이행으로 관광경북의 초석을 다졌으며 생활문화향유 확대, 문화재수리재료센터 유치(고용창출 효과 2,078명),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서 경북선수단이 35개의 메달을 획득하는 등 문화·관광·체육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다.

도는 올해에도 경북관광 활성화, 경북 문화유산의 세계화 추진, 생활 SOC 확충 등 다양한 시책사업 추진으로 '도민이 살기 좋은 경북, 세계로 열린 문화관광 경북' 을 만들어 경북도를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국제적 관광 인프라 구축, 여행하기 좋은 경북관광 조성, 해외관광객 유치 등으로 세계인이 찾아오는 관광명소 경북을 실현한다.

경북문화관광공사의 조직과 기능 확대개편, 관광 전문인력 양성, 중부

내륙권 광역관광개발, 환동해 신북방 관광벨트 조성, 대구·경북 상생관광으로 관광객 유치 확대 등 관광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글로벌 관광 마케팅으로 2020년까지 청년일자리 200개를 포함해 일자리 6천여 개 이상을 창출할 계획이다.

또한 생활SOC 확충, 문화재단 설립, 경북 문화유산의 세계화 추진 등으로 문화예술 향유여건 및 기회를 확대하고 도민의 자긍심을 높인다.

경북도서관 개관,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등으로 생활 문화기반 조성 및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한국의 서원, 가야 고분군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는 등 경북 문화유산의 세계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2020년 ‘제101회 전국체육대회’ 성공개최로 경북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생활체육 활성화와 국제 및 전국규모 스포츠대회 개최로 도민의 건강을 증진하는 한편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2020년 대구·경북 관광의 해 추진, 3대문화권 공동 홍보마케팅, 문화예술행사 참여 및 교류 등 대구·경북 상생협력사업 추진으로 550만 시·도민의 화합과 통합에도 앞장서 나간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종가음식 체험관에 새로운 문화를 불어넣어 젊은 사람 입맛을 사로잡을 수 있는 지역 전통음식을 개발해 관광상품화 하고, 경북도서관은 단순히 책 읽는 기능에서 벗어나 VR·AR을 활용한 시각·청각·촉각이 어우러진 콘텐츠 도서관으로 만들어야 한다”면서

“모든 사업을 추진할 때는 차별화되고 새롭고 시대에 맞는 콘텐츠를 개발해 경북관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21(월)】	담당부서	일자리경제산업실 국제통상과				
		작성자	과장	박노선			
			팀장	구광모	주무관	강효순	
		연락처	054-880-2714				

경북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설명회.. 중소기업 수출활력 높여

- 중기청, 중진공, KOTRA 등 6개 수출지원 유관기관 지원사업 합동 설명 -
- 수출지원정책 수혜 중소기업 확대... 전년도 900개사→올해 1,200개사 -

경상북도는 21일(월) 대구 인터블고 호텔(만촌동)에서 100여개의 도내 중소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수출활력 제고를 위한 ‘수출지원사업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경북도의 주요시책을 비롯해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 대구경북KOTRA지원단,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경북테크노파크 등 수출지원 유관기관의 지원사업도 함께 소개했다.

경북도는 올해 중소기업 수출확대를 위해 정부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연계한 신흥시장 개척을 포함해 무역사절단 파견(19회), 국제전시박람회 참가(30회), 바이어초청 수출상담회 개최(6회), 수출유망기업 일자리플러스원, 해외시장조사, 무역실무교육, 해외지사화, 통번역, 해외인증, 무역컨설팅, 수출보험, EMS, 개별전시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수출마케팅 지원사업을 운영한다.

또한, 사업예산도 지난해 54억원에서 26% 증가한 68억원을 투입하고, 수혜기업 역시 900여개에서 올해는 1,200여개 기업으로 확대하는 한편 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의 역할과 기능 강화를 위해 회원기업도 350여개에서 500개 이상으로 늘려나갈 계획이다.

한편 대구경북지방중소기업청은 수출바우처 사업을 필두로 중국 등 해외 인증 사업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경북지역본부는 수출기업

신시장 진출을 위한 자금지원과 함께 해외 14개국에 수출인큐베이터를 운영한다.

대구경북KOTRA지원단은 해외 127개 무역관을 기반으로 수출초보기업을 대상으로 한 기본적인 상담서비스를 포함해 내수, 장소, 중견 등 기업 성장 단계별 맞춤형 해외마케팅 서비스를 지원한다.

경상북도 수출지원 사업에 관심있는 도내 중소기업은 경북도나 각 수출 지원 유관기관에 연락하면 된다.

※ 경상북도 국제통상과 054-880-2713~2716, 대경중기청 수출지원센터 053-659-2242, 중소기업진흥공단 1357, KOTRA 1600-7119,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054-472-2986, 경북테크노파크 053-819-3000

전우현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설명회는 지자체와 수출유관기관, 그리고 지역 중소기업이 정보를 공유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했다”면서

“새로운 수출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지역 특화 글로벌 챔피언을 육성할 수 있도록 경북도가 중심이 되어 유관기관과 함께 기업 중심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2019 경상북도 중소기업 수출지원정책설명회 개최

◆ 경상북도 중소기업 대상 수출증대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2019년 수출지원정책 합동설명회 개최

■ 행사개요

- 일 시 : 2019. 1. 21(월) 15:00 ~ 20:00
- 장 소 : 대구광역시 만촌동 인터블고호텔(행복한 홀)
- 주최/주관 : 경상북도 / (사)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
 - ※ (사)경북수출기업협회(2014. 10. 27 설립, 회원수 350개사 정도)
- 참석인원 : 100여명(도내 중소기업 및 수출유관기관 임직원 등)
- 내 용 : 수출유관기관 지원시책 안내, 경수협 회장단 이·취임식 등

■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정기 총회	15:00~15:05	10' ● 참석자 등록	
	15:05~15:30	25' ● (사)경상북도수출기업협회 정기총회 - 2018 결산 및 감사보고, 의결사항 등	
시책 설명회	15:30~16:45	80' ● 2019 수출유관기관 시책설명회 - 경상북도(20') - 대구경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5') -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지역본부(5') - 경제진흥원(5'), KOTRA(5'), 경북TP(5')	
		● 전문가 초청특강(30') - 미국시장 진출전략	손대홍(前 H마트 부회장)
	16:40~17:00	15' 휴식	
이취 임식	17:00~17:05	5' 개회 및 국민의례	사회자
	17:05~17:10	5' 내빈소개	
	17:10~17:20	10' ● 이취임식(인사말, 감사패 전달 등)	
	17:20~17:30	10' ● 축사(경상북도, 대경중소벤처기업청)	경제부지사
	17:30~17:35	5' 기념촬영	단상
	17:35~		만찬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21(월)】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보건정책과				
		작성 자	과 장	김 영 길			
			팀 장	박승권	주무관	권문주	
		연 락 처	054-880-3801				

경북도청 공무원, 2019년을 따뜻한 헌혈로 시작~

- 21일(월) 도청 본관 전정, 공직자 생명나눔·사랑의 헌혈운동 전개 -

경상북도는 21일(월) 도청 본관 전정에서 안정적 혈액 수급과 생명 나눔 실천을 위한 공직자 사랑의 헌혈운동을 펼쳤다.

이번 헌혈 운동은 혈액 수급이 어려운 동절기에 공직자들의 헌혈 참여 문화를 확산하고 혈액수급 안정화를 위해 마련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헌혈 중 10~20대(고등학생, 대학생, 군인 등)가 72.4%로 청년층에 주로 의존하는 실정에서 공직자의 헌혈은 중장년층 헌혈자 확대를 위한 인식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따르면 현재 혈액보유량은 3.8일분('19. 1. 14.기준)으로 적정 혈액보유량인 5일분 이상 확보에는 부족한 실정이다.

혈액수급 위기단계는 3일분 미만의 경우 주의, 2일분 미만은 경계, 1일분 미만은 심각단계로 이루어진다.

경북도는 매년 동·하절기 헌혈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도내 시군 공직자들을 포함해 1,927명이 참여해 혈액수급에 큰 도움을 줬으며 올해에도 적극적인 공직자 헌혈운동을 통해 경북지역 헌혈문화 확산에 적극 동참할 계획이다.

헌혈은 16세에서 69세까지(65세 이상은 60세~64세까지 헌혈유경험자에 한함)로 남자는 50Kg이상, 여자는 45Kg이상 건강한 사람이면 참가할 수 있다.

헌혈자에게는 헌혈증서, 무료 혈액검사(혈액형, B형·C형 간염, 간기능, 매독 등), 기념품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헌혈증서는 차후 헌혈자가 수혈이 필요한 경우 헌혈한 만큼의 수혈비용을 공제받을 수 있으며, 질환이나 갑작스런 사고 등으로 혈액이 꼭 필요한 사람에게 양도해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데 쓰일 수 있다.

행사장을 찾은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사랑의 헌혈 행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에게 고마움을 전하며 “귀중한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헌혈운동에 공직자들과 도민들이 적극 참여해 헌혈문화 확산과 참여분위기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공직자 생명나눔·사랑의 헌혈 운동

- ◇ 저출산·고령화로 혈액 수요 증가, 계절적 요인 등으로 공급 어려움
- ◇ 공직자 중심 헌혈문화 정착 및 혈액수급 안정화 도모

□ 헌혈개요

- 일 시 : 2019. 1. 21(월) 10:00 ~ 17:00(접수 16:30까지)
- 장 소 : 본관(안민관) 전정(헌혈 차량 2대)
- 대 상 : 도청직원 中 헌혈 희망자
- 실 적 : '17년(2회) : 101명, '18년(2회) : 94명
- 주 관 : 대한적십자사 대구경북혈액원
- 준 비 물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혈액수급상황

- 헌혈감소로 혈액 보유량 부족한 상태
현재 혈액보유량 : 3.8일분 (혈액수급 위기단계 : 관심)
※ 적정혈액보유량 : 5일분 이상 확보 (1일 소요량 457 Unit)
※ 위기단계 : 3일미만(주의단계), 2일미만(경계단계), 1일분 미만(심각단계)

□ 헌혈자 혜택

- 혈액검사 : 혈액형, 간기능 검사(ALT), 간염(B형, C형) 검사 등
- 헌혈증서(타인 양도 가능) : 1매당 1유니트 수혈비용 공제
- 상시학습 4시간 인정

□ 향후계획

- 각 실국 공직자 헌혈 동참 독려
- 경상북도교육청, 경상북도지방경찰청 참여 협조 요청
- 헌혈자 저변확대 및 올바른 헌혈문화 조성
- '19년 **하절기** 도 및 시·군 공직자 헌혈 운동 추진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21(월)】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장애인복지과			
		작성자	과장	손동익		
			팀장		주무관	박석윤
		연락처	054-880-3762			

제7기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본격 가동

-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개최... 위촉장 수여 및 안건 심의 -
- 위촉위원 보강... 민선7기 장애인복지 정책에 대한 기대감 높여 -

경상북도는 21일(월) 도청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를 개최해 새롭게 구성된 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 계획(안)을 심의하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도지사가 위원장인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과 장애인복지 전문가 등 19명으로 구성, 앞으로 2년간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시행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한 심의와 자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새롭게 출범한 위원회는 위촉위원의 절반 이상을 장애인 당사자들로 구성해 장애인의 목소리가 정책에 직접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동안 소홀하다고 지적된 장애인 인권보장에 관한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해 관련 전문가를 보강했다.

이날 회의는 위촉장 수여, 2019년 장애인복지 주요업무 보고에 이어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안) 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경북도는 심의 안건으로 처리된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장애인 복지서비스의 양적 확대뿐만 아니라 장애인의 차별금지와 권리구제,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장애인복지는 복지 선진국의 시금석으로 경북이 먼저 장애인과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 나라의 앞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지혜를 모아 달라” 고 당부하면서

“민선7기 도정목표 중 하나인 ‘이웃과 함께 복지경북’ 을 실현하는 과정에 장애인이 결코 소외받아서 안 된다. 우리 위원회가 장애인 복지의 대변자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개최 계획

회의개요

- 일 시 : 2019. 1. 21.(월) 11:00 ~ 12:00
- 장 소 : 도청 중회의실(209호, 호국실)
- 참 석 : 20명 (위원 14, 관계 공무원 등 6)
- 주요내용
 - 2019년 장애인복지 주요업무 보고
 - 경상북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안) 심의

시간계획

시 간		내 용	비 고
11:00~11:05	5'	• 위촉장 수여	지사님
11:05~11:15	10'	• 인사말씀	
11:15~11:25	10'	• '19년 주요업무 보고	
11:25~11:40	15'	•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안) 보고	
11:40~11:55	15'	• 토론 및 심의	
11:55~12:00	10'	• 의결 및 폐회	※ 오찬 : 구내식당

※ 하실 일 : 위촉장 수여, 인사말씀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21(월)】	담당부서	건설도시국 도시계획과				
		작성자	과장	김정수			
			팀장	권중기	주무관	송인수	
		연락처	054-880-3918				

올해 첫 도시계획위원회 개최해 3건 심의.. 도시개발사업 활력

- 칠곡 군관리계획(교통시설:대로) 결정(변경)(안), ‘원안가결’ -
- 구미 상모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및 개발계획수립(안), ‘조건부 가결’ -
- 경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변경)(안), ‘원안가결’ -

경상북도는 지난 18일(금) 2019년 제1회 경상북도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칠곡 군관리계획(대로) 결정 변경 등 3건을 심의·의결했다.

칠곡 군관리계획 변경 안은 북삼읍 인평리에서 울리 도시개발사업 구역으로 진입하는 대로 244m를 결정하는 건으로 원안 가결했다.

북삼지구 도시개발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1,463억원을 투입해 환지방식으로 790,622㎡의 규모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진입도로 계획이 결정됨에 따라 앞으로 본 사업이 활발히 추진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 상모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수립 안은 상모동일원에 115,784㎡ 규모의 주거용지를 공급하는 내용으로 심도있는 논의 끝에 공동주택 이면도로와 주차장 및 보도를 추가 확보하는 것으로 조건부 가결됐다.

이번 심의로 구미 국가산업단지 배후지에 대한 난개발을 막고 계획적인 개발을 통해 주거용지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경산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 변경 안은 와촌면 소월리 일원에 위치한 경제자유구역 지식산업지구 일원의 투기적 토지 거래 방지를 위하여 2008. 4. 13일 최초 지정되었으며 1단계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따라 허가구역을 당초 10.12㎢에서 1.01㎢로 대폭 축소하는 계획으로 원안 가결했다.

허가구역 변경은 도보 공고 5일 후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되므로 오는 1월말부터는 토지거래시 허가절차를 밟아야 했던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최대진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기 활성화를 위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도시의 난개발은 막고 계획적 개발을 통한 쾌적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사진자료

 경상북도	보도자료 【19. 1. 21(월)】	담당부서	복지건강국 노인효복지과			
		작성 자	과 장	김 종 현		
			팀 장	정선홍	주무관	윤혜선
		연 락 처	054-880-3749			

경북도, 동절기 독거노인 안전 직접 챙긴다

- 보호대책 현장점검, 어르신들의 안전한 겨울나기 지원 독려 -

경상북도는 22일(화)부터 31일까지 도, 시군 합동으로 동절기 독거노인 보호조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주요 점검사항은 한파·대설 발효시 일일안전 확인, 화재 및 동파 사고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지역 자원을 활용한 한파 대비 독거노인 보호 대책 등이다.

경북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독거노인 가구의 실태를 정밀 파악하고 생활관리사를 비롯한 종사자들의 현장의견을 수렴해 ‘독거노인의 안전한 동절기나기’ 방안을 마련한다.

도는 독거노인 24,650명을 대상으로 ▲ 생활관리사들이 주1회 방문, 주2회 안부전화(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 거동불편 독거노인 주택 4,341 가구에 화재·가스감지기 설치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와 119 자동신고를 통한 신속한 구조활동 지원(응급안전알림서비스사업) ▲ 무의탁독거노인을 위한 건강음료배달, 무료급식, 식사배달 등의 사업에 올해 총 285억원을 지원한다.

김재광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동절기 어르신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생활관리사, 관련 종사자 등과 함께 자주 현장을 찾아 확인하는 등 독거노인 안전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고 말했다.

참고자료1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수행기관 현황

(2019. 1월)

연번	시 군	기관명	주 소	거 점 관리자	서비스 관리자	생 활 관리사
		계	1,218명	2	48	1,168
1	포항시(북구)	포항원광보은의집	북구 소타재로 151번길 36		3	64
2	포항시(남구)	포항시니어클럽	북구 칠성로47번길 4(남빈동)		3	64
3	경주시(거점 수행기관)	경주시종합사회복지관	경주시 승삼1길 32	2	4	98
4	김천시	김천시노인종합복지관	김천시 중앙공원1길 16		2	60
5	안동시	사)안동시자원봉사센터	안동시 인기천로 74, 2층(당북동)		4	81
6	구미시	금오재가노인지원서비스센터	구미시 해평면 송곡2길 36		1	29
7	구미시	성심노인복지센터	구미시 선산읍 단계서길 83-8		1	29
8	영주시	영주재가노인지원센터	영주시 철탄길 8		2	55
9	영천시	영천시야사사회복지관	영천시 충효로 147		2	64
10	상주시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상주시 냉림2길 111		3	70
11	문경시	문경시종합사회복지관	문경시 당교로 195, 3층		2	62
12	경산시	경산시재가노인지원센터	경산시 원효로26길5		3	64
13	군위군	군위노인복지센터	군위군 군위읍 군위금성로 140		1	22
14	의성군(직영)	의성군청	의성군 의성읍 군청길 31		2	54
15	청송군	청송재가노인지원센터	청송읍 주왕산로 7-284		1	29
16	영양군(직영)	영양군청	영양군 영양읍 군청길 37		1	18
17	영덕군	영덕지역자활센터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27-5		1	32
18	청도군	청도군 주간보호센터	청도군 화양읍 청화로 79-15		2	46
19	고령군	사회복지법인 대조구국원	고령군 쌍림면 매촌1길 157		1	29
20	성주군	이웃과하나노인복지센터	성주군 성주읍 예산3길 8-4		1	30
21	칠곡군	칠곡노인복지센터	칠곡군 왜관읍 평장1길 9, 1층		2	46
22	예천군(직영)	예천군청	예천군 예천읍 군청길 33		2	40
23	봉화군(직영)	봉화군청	봉화군 봉화읍 봉화로 1111		1	28
24	울진군	울진노인복지센터	울진읍 연지1길 114		2	44
25	울릉군	경상북도장애인종합 복지관울릉분관	울릉읍 저동1길 21-20		1	10

참고자료2

독거노인 주요 사업조서

사업명	사업량	2019년 예산액(백만원)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독거노인관련 사업	8개	28,475	14,804	2,783	10,888	
독거노인사회관계활성화사업지원	3개소	150	105	13	32	
독거노인생활관리사대회	200명	25		25		
독거노인공동거주의집사업	45개소	270		81	189	
무의탁노인건강음료배달사업	24,650명	1,923		192	1,731	
거동불편저소득재가노인식사배달	68개소	2,254		225	2,029	
경로식당무료급식	54개소	2,487		248	2,239	
노인돌봄기본서비스사업	1,218명	20,076	14,054	1,806	4,216	
독거노인·중증장애인응급안전 알림서비스 운영지원	4,341가구	1,290	645	193	452	

사진설명

□ 이철우 도지사, ‘신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 임용장 수여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 21일(월) 접견실에서 신임 김장호 기획조정실장에게 임용장을 수여했다.

※ 보도자료는 1. 20일(일) 기 제공 : 별 첨

동 정

□ 이철우 도지사, ‘제15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 참석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 22일(화) 오전 영·호남 시도지사들과 국립 5.18민주묘지를 참배하고 이어 오후 1시10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리는 ‘제15회 영·호남 시도지사 협력회의’에 참석해 현안을 논의한다.